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 흐름과 사고

순허원 중국 전매대학교

류즈치양 광둥 외어외무대학 동방학연구소

한국 현대문학은 20세기 초부터 중국에 번역 전파되기 시작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번역이 번성한 시기도 있고 침체된 시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전파와 번역사를 보면 꾸준한 흐름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번역 목적으로 보면 '거울로 삼는 약소나라—백화제방(百花齊放)의 이웃나라—시장수요의 한류나라'라는 과정을 거쳤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중국에서 한국 현대문학작품의 전파와 번역사의 시각에서 1910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피고 각 시기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시적이고 전면적인 역사의 조명 아래에서 한국 현대문학 번역이 직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주제어 중국, 한국 현대문학, 전파, 번역

I. 들어가기

중국과 한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나라다. 20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 열풍 현상, 즉 '한류'는 중국을 비롯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런 한류의 열풍은 문학적 기반이 없었다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한 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에는 문화가 가장 효과적이고, 문화를 알리는 데에는 문학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말처럼 문학은 문화의 중요한 표현 형식이고 더 깊은 차원에서 민족문화와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을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한국 문화의 전파에 관해 좀 더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전의 중국과 한국 간의 문학 교류에 대한 연구는 고전문학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한국 현대문학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양국 간의 현대문학 교류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한국에서는 이병길 외의 『한국문학 세계화 방안 연구: 한류현상을 계기로 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저서에서는 2004년까지 중국문학과 도서시장의 특징, 한국과의 문화교류 현황과 한국문학의 위상, 한류를 통한 교류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병길 외, 2005: VI). 학술 논문으로는 김윤진의 “중국에서 문학한류와 번역현황”, 고인덕의 “중국어권 진출 현황 연구”, 홍정선의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있다. 이 논문들은 주로 현재 문학 번역의 상황과 문제점을 한류와 결합하여 제시했다. 특히, 한국 문학작품이 중국에 소개된 역사적 과정을 살피고 번역도서목록을 정리하고 번역 양상을 분석했다. 학위 논문으로는 김학철의 “20세기 한국문학 중역사 연구”, 왕염려의 “중국의 한국 현대문학 번역 및 수용 양태 연구” 등이 있다. 두 논문에서는 각각 20세기와 중한 수교 이후의 한국문학의 번역과 수용 양상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학술논문이 상대적으로 많다. 김학철(金鶴哲)의 “중한 수교 이후 중국문단에서 한국 순문학 번역 연구”, 최웅권·김일(崔雄權·金一)의 “한국소설 중국에서의 전파와 연구”, 김장선(金長善)의 “20세기 후반기 중국에서의 한국번역”, 김학철의 “1949년 이전 한국문학 중역과 이데올로기 요소”, 김일(金一)의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의 현황과 미래 전망”, 김일의 “한국문학 중국에서의 번역과 출판 현황 총론”, 임춘성(林春城)의 “한중문화 교류와 뛰어넘기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그 외에 석사논문으로는 하문가(夏文佳)의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중국 진출 현황 연구”가 있다. 이 논문들은 주로 한국문학 번역본의 출판 상황과 각 시기 번역본의 목록 정리, 번역 양상, 번역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전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했다.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에 관해 특정 시기나 특정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다. 동시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체 흐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그리고 역사적인 시각에서 지금의 전파와 번역에 관련된 문제를 보는 총론적인 사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중국에서 한국 현대문학작품의 전파와 번역사적인 시각에서 1910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피고 각 시기의 특징을 규명한

뒤 더 거시적이고 전면적인 역사의 조명 아래에서 지금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문학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을 말한다.¹ 하지만 아쉽게도 중국의 외국문학 번역사에서 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문학의 번역은 많지 않았다. 한국문학이 중국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10년을 기점으로 고찰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은 역시 시대 배경, 특히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정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을 양국 정치관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었다. 첫번째 단계는 1910년부터 1949년 신중국 성립 전까지, 두 번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92년 중한 수교 전, 즉 양국 정상 외교관계 회복까지, 세 번째 단계는 중한 수교 이래, 즉 양국 정상 외교관계 회복 이후다.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중국에서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은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동시에 문학 차원의 교류에서는 시장경제 발전의 제약도 있었고, 번역 단체의 사회가치 구현 정도의 영향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II. 1910년부터 1949년 신중국 성립 전까지의 전파와 번역

20세기 초 중국 사회와 문화는 서양 현대사조의 영향을 받아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해혁명, 신문화운동, 5·4운동 등과 같은 사회와 문화의 변혁을 겪어왔다. 그 결과 중국의 현대문학은 서양의 현대사조의 영향 아래 서양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문학 교류를 통해 특유의 문학 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¹ 『한국현대문학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3661&cid=41708&categoryId=41737>

1.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영향

당시 중국은 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었지만 지식인들은 오히려 지식의 전파에 전력을 기울였다.

중국의 지식인 후스(胡適), 천권루(沈鈞儒) 등은 한국과 베트남의 국정에 깊은 동정을 표했고 중국 사람들에게 이 두 나라를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1925년, 저우쥘런(周作人)은 최초로 일본어 판의 “최치원”, “투법”, “도문”이란 세 편의 조선의 민간 전설을 번역하여 『어사(語絲)』에 기재했다. 그는 부기(附記)에서 번역 동기를 언급했다.

조선이 기사(箕子)의 후예 여부를 막론하고 또 그가 이전에 속국이었는지 여부도 상관없이 그 역사적 지위를 말하자면 중·일 사이에 양국의 문화를 전달함으로써 동아시아(亞東)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조선 또한 일본 못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周作人, 1932; 김학철, 2009: 49 재인용)

저우쥘런은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중국인이 조선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후평(胡風)은 1936년 소설집 『산령(山靈)』(조선 대만소설선집)을 번역 출판했다. 저우쥘런에 비하면 후평은 이 책의 서언에서 20세기 전반기 한국문학 번역의 문학사적 의의와 시대적 의의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작년에 『세계지식』 잡지에서 약소민족의 소설을 번역 기재했을 때 나는 동방의 조선과 대만이 생각났다. 그들의 문학작품을 지금 바로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점점 나는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참고 있는 그 거대한 마수에 놀려 그들과 같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친다. … 조선의 신문학운동은 중국보다 10년 앞서 신구(新旧) 작가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유파를 형성했다. … 그러나 나는 조선어도 모르고 대만의 자료도 얻을 수 없어서 참 유감스럽다. … 그래서 조선과 대만의 문학을 소개하기에 이 책으로서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책은 중국 독자들에게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최근 우리 민족은 하루하루 생사존망의 고비에 다가가 있으며 또한 지금은 철저하게 ‘동양

평화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나는 외국의 이야기를 내 일처럼 읽어냈다. 그 원인을 독자 여러분이 꼭 느낄 수 있을 것이다. (張赫宙, 1936: 3-4)

그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일제 통치하의 한국에 무한한 동정을 보냈다. 이 서문을 통해 우리는 당시 한국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목적이 약소민족인 한국의 망국 경력을 거울로 삼아 일본 침략으로 “생사존망의 고비”에 직면한 자기 민족에 경종을 울리고 ‘항일 구국’ 호소에 동력을 기울이려는 데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중국에 번역 소개된 작품은 20여 편에 달한다. 주로 『조선풍경』(範泉 譯), 『흑백기』(範泉 譯), 『산령』(胡風 譯), 『조선전설』(清野 譯), 『조선현대아동고사집』(邵霖生 譯), 『조선동화』(吳葆溪 譯), 『조선현대동화집』(邵霖生 譯) 등이 있다(楊昭全, 2004: 1615).

중국에 소개된 한국작가는 김영팔·송영·조벽암·임화·권환·장혁주·이북명·정우상·이기영·김동인·이효석·이태준·김사량·이광수·우진오·전용·박아지·양주동·김해강·박희월·정용수 등 20여 명이다. 이들은 주로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다(金哲, 2013: 33).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당시 가장 많이 번역된 『산령』의 작가인 장혁주다. 그는 1932년에 일본 잡지 『카이쵸(改造)』 현상 공모에서 소설 “악귀도”가 2등으로 입선된 뒤 일약 각광을 받게 되었다(시라카와 유타카, 2010: 26). 후에 친일파가 되어 1936년에 도쿄로 이주했다. 그런데 그의 초기 작품 주제가 대부분 일본 식민 통치 아래 한국 민중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렸기 때문에 후평 등 중국 지식인들은 그를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생각했다.

한국 경북대학교 김주현 교수는 그 당시 한국 현대소설을 중역한 작품을 중국 관내 지역(베이징, 상하이 등)과 관외 지역(동북 삼성 등지)으로 나눌 수 있고, 관내 지역에서는 프로문학부터 번역되었고, 관외 지역에서는 모두 비프로 문학 계열의 작품들이 번역되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창춘을 비롯한 관외 지역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면서 프로문학은 침체 및 해체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한다(김주현, 2017: 375-379).

2. 중역(重譯) 현상

일찍이 한국 현대문학을 번역한 역자는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다. 즉,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일본어에 능통한 저우쥘린 같은 이들이 번역을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 때문에 중국으로 전파된 한국 작가의 작품은 드물 수밖에 없었고, 많은 중국 지식인들은 일본어, 러시아어, 세계어로 발표된 한국 작품들을 중국에 번역 소개했다. 예를 들어 후평이 번역한 『산령』은 일본어에서 번역했고, 장혁주의 『쫓기는 사람들(被驅逐的人們)』은 원래 일본어로 된 작품이었는데 후에 일본인 다카기 히로시(高木宏)가 세계어로 번역했고, 예진젠(葉君健)은 세계어 번역본을 다시 중국어로 중역(重譯)했다.

제2언어로 중역한 주된 원인은 그 당시 한국어를 아는 중국인이 드물어 번역하는 데 언어가 가장 큰 장애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작을 통한 것이 아닌 제2언어의 중역 현상은 20세기 전반기의 중국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3. 역자의 신분

이 시기 역자의 특징은 역자인 동시에 문학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우쥘린, 후평, 예진젠 등은 모두 중국의 유명한 작가, 문학비평가, 사상가, 시인이었다. 그들은 한국 문학작품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이나 다른 약소민족의 문학작품들도 중국어로 번역했다. 중역(重譯)이 가져올 수 있는 원본 충실 여부 등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의 번역은 번역문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필치로 가독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샹오홍(蕭紅)이 『산령』을 읽고 느꼈던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샹오홍은 “고독한 삶”이란 글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들은 『수호』 외에 후평이 번역한 『산령』이 있다. 『수호』는 건드리기도 싫다. … 『산령』 상편에 있는 “소리”란 글을 읽고 났더니 비가 언제 그쳤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푸른 불빛의 어두움을 느껴 흰색등을 켜고 『산령』을 계속 읽으려 했다. 나의 주위는 더 조용해졌다. 나는 내 자신까지도 잊어버렸을 때 마치 내 주위도 출렁이는 것 같았다. 날이 아직 밝지 않았지만 나는 또다시 3편을 읽어나갔다. (김학철, 2009: 76 재인용)

샤오홍의 『산령』에 대한 사랑은 작품 자체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자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어색하고 난해한 문구라면 아무리 빼어난 내용이라도 중국의 유명한 작가가 밤에 등심지를 돋우고 그 작품에 빠져들게 하기에는 역 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역자들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취생(翠生)은 박희월의 단편소설 “전투”를 번역하여 상해신문화서사의 『세계문학독본』에 수록했다. 또 한국의 중문학 학자이자 수필가 정래동은 양주동의 시 “조선의 맥박”을 번역했다. 1940년대, 상해에서 창간된 『중한문화월간』은 한국인 유기석이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 잡지에도 “일식월식의 유래”, “노랄치전설” 등 한국의 민간문학 몇 편이 수록되어 있다(金鶴哲, 2009).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20세기 전반기에 적지 않은 한국의 반일 인사들이 중국에서 공부했고 그들이 중국어나 한국어로 많은 작품을 창작했다. 예를 들어, 신채호(1880~1936)는 1910년에 중국으로 이주했고 러시아로 갔다가 1915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중국에서 “몽천”, “용과용의 대격전”, “건륭 황제의 꿈”, “백세 노인의 미인담”, “일목대왕의 철추” 등의 소설을 창작했다(楊昭全, 2004: 1603).

III. 1949년부터 1992년 중한 수교 전까지의 전파와 번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중국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이 시기의 주요 임무로 문학창작도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폭발된 문화대혁명으로 문화예술은 정치의 영향을 유례없이 많이 받았다. 1978년 중국공산당은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채택했다. 이후 중국의 문화예술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 지식인들이 다시 서양의 사조로 눈을 돌렸고 상흔문학, 개혁문학, 선봉문학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 문학 번역에 대한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영향

역사적·사회적 환경 및 문화풍조는 번역문학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세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졌다. 냉전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두 진영은 경계가 분명했고 각각 자신만의 문학예술향을 표명했다. 이런 상호 대립적인 정치 형세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번역 사업에 미친 영향이 컸다. 건국 후 오랜 시간 소련에 의존했던 중국은 소련인민의 혁명투쟁과 생산건설에 관한 작품을 다수 번역 소개했다.

1954년 8월 전국적인 문학번역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마오둔(茅盾)은 주제 보고를 했고 귀모뤄(郭沫若)도 번역을 논하는 발언을 했다. 귀모뤄는 “세계 각 나라, 각 민족은 다 자기의 우수한 작가를 가지고 있어 우수한 작품을 남겼다”,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문학 유산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글을 지어 소련과 인민민주국가로부터 배우는 것 외에도 우리는 세계 각국의 학술계와 더 많은 교류를 바라며, 유심주의(唯心主義)의 학설이라도 거절하지 않겠다고 했다(楊義, 2009: 1-2).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역자들은 여전히 외국문학의 번역 소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1966년 『세계문학』에 발표된 펑쯔(馮至)의 “마오쩌둥 사상의 깃발 아래 외국문학 종사자의 전진”이란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건국 이래 외국문학 사업은 당의 지도 아래에서 매우 큰 진보와 발전을 거두었다. 외국의 고전명작, 혁명의 사회주의 문학과 민족주의 문학을 계획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번역의 범위도 날로 확대되었다. 서양 자본가 계급의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문학은 중국에서 시장을 완전히 상실했다. 번역의 질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국가에서는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기구를 설립했고 문예단체도 외국문학의 상황과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관점과 방법으로 외국문학을 연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문화교류에서 외국문학종사자도 많은 역할을 했다. (楊義, 2009: 5-6)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주로 북한의 작품들이 번

역 소개되었다. 『세계문학』 1959년에서 1964년 판만 보더라도 30여 편의 북한 문학작품이 게재되었다(金鶴哲, 2009: 81).

20세기 후반기에는 냉전의 영향으로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몇 편의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와 관련된 논문은 대부분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농후했다. 예를 들어, 1963년 『세계문학』에 한창희(韓昌熙)의 “미제국주의 통제하의 남조선문학(美帝控制下的南朝鮮文學)”, 『노동자』에 이원근(李元根)의 “남조선문학의 현황(南朝鮮文學的現況)”, 『문학신문』에 박호범(朴虎範)의 “죽음과 절망을 선양하는 문학: 작년 남조선 문학의 현황(宣揚死亡和絕望的文學: 去年南朝鮮文學現況)”이 게재되었다.

그렇지만 ‘문화대혁명’의 도래로 ‘극좌’의 사조가 몰아치면서 문학번역 사업은 완전 파괴되고 만다. 『세계문학』은 강제 중단되었고 내부에서 발행하는 『적역(摘譯)]에서만 몇 년(1966~1976) 동안 외국 문학작품을 번역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외국문학 번역본의 출판 방식은 주로 두 가지였는데 정식출판과 내부 발행이 그것이다. 내부 발행은 그 당시 주로 “비판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같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던 북한문학은 정식출판의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종결에 따라 중국의 문예정책은 점차 조정과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1978년 5월에 열린 제3차 전국문학예술계연합회 제3차 회의에서 마오둔은 “문예정책의 조정은 … 마오쩌둥 동지의 숙원”(孟昭毅等, 2014: 891)이라고 하면서 문화대혁명 이후 처음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문예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음을 언급한다. 그 이후 ‘백화제방, 백가쟁명’²의 문예정책이 <헌법>에 기재됨에 따라, 『문예보』에서는 1979년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연속으로 사상해방에 관련된 문예평론을 실어 예술계의 사상해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1978년 12월 중국외국문학학회가 광주에서 설립된 것은 중국의 외국문학 사업이 새로운 역사발전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했다(孟昭毅等, 2014: 891). 1978년 『국외사회과학』에 심의림(沈儀琳)의 “남조선의 소설 창작과 문학 평론 경향(南朝鮮的小說創作和文學評論傾向)”이란 논문이 실렸는데 이는 1970년대 최초로 남조선 문학

² 1956년 중국 공산당이 예술 발전·과학 진보와 사회주의 문화 번영의 촉진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

소개하는 것이었다.

1979년에 『세계문학』에서 장린(張琳)이 번역한 김지하의 시가 실렸다. 『세계문학』 1979년 제6호에는 김지하의 “1974년 1월”, “서울”, “서대문 101번지”를 비롯한 15편의 시가 실렸다. 김장선은 그것이 1960~70년대 처음으로 한국 문학작품을 번역 소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지하는 남조선 체제를 반대하는 작가의 신분으로 그 당시 중국의 ‘번역 금지영역’을 타파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金長善, 2006).

1981년 『외국문학동태』에 진징(金晶)의 “남조선문학소개”가 발표되었고, 같은 해에 『화성(花城)』에 리칭스(李靑石)의 “남조선의 한학과 한문학”이 발표되었다. 그 후 남조선문학에 대한 정보가 점점 많아졌고, 1983년에 상해역문출판사에서 메이즈(枚之) 등이 번역한 『남조선소설집』을 출판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한국작가들의 작품을 실은 소설집이었다. 냉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런 소설집을 출판하려면 용기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중국개혁개방의 풍조 변화와도 연관이 있었다. 1979년 10월 등소평은 제4차 전국문학예술총사자대표회의에서 “문예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문학예술이 임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정치임무에 종속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예술의 특징과 발전 법칙에 따라 문예종사자에게 조건을 만들어 끊임없이 문학예술사업을 번영시키고 문학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孟昭毅 等, 2014: 891)라고 말한다.

다음은 메이즈의 『남조선소설집』 번역 후기의 일부다.

37년 동안 남북이 서로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정치제도가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언어문자도 차이가 생겼다.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선인민은 조국 통일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고, 우리 중국인민도 조선 형제를 동정했고 그들의 조국통일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우리는 남조선의 상황에 대해 거리를 두었고 남조선의 문학도 아직 소개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남조선의 자료를 발굴하여 관련된 방면에 참고될 만한 것을 제공할 수 없을까 생각하게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소설집을 선택 편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이나마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王向遠, 2001: 285-286)

20세기 전반 『외국문예』, 『외국문학동태』, 『외국문예사조』, 『세계문학』은 한국 문학의 번역과 전파에 적극적이었다. 1983년 『외국문학연구』 제4기에 “근년 이래 남조선 문학 동향”이 실렸고 이는 중국 내 학계에서 한국문학 연구의 개방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즈음하여 다수의 한국소설이 번역 출판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대중소설이 중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79년에서 1992년까지 단행본 15권이 출판되었는데 그중 8권이 대중소설이었다. 『길』, 『불타는 여인』, 『끝없는 복수』, 『손자병법연의』, 『천국의 계단』, 『최후의 밀서』, 『대중해학소설집』, 『장미부인』이 그것이다(金鶴哲, 2009: 147).

2. 다양한 역자의 출현

이 시기에 역자도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였다. 어떤 작품을 번역할지 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자의 주체성이 말살당했을 뿐만 아니라 역자의 서명도 대부분 단체로 해서 역자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했다. 예를 들어, 1966년 작가출판사 상해편집소에서 출판한 김재호의 소설 『습격』의 역자명은 ‘베이징대학 조선어연구실’로, 1976년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최영화의 『조선시집』의 역자명은 ‘연변대학조문학부 72기 공농병학생’으로 되어 있다.

베이징대학을 비롯한 대학에서 조선어학과를 개설함에 따라 이 시기에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전문 번역가도 나타났다. 위옥승, 강신도, 선덕오, 심의림, 하진화, 장민, 고종문 등이 그 예다. 이 중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한국어 언어학을 연구한 강신도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한족이고 베이징대학 동양언어학부 출신들이다. 또한 출판계에 있는 고종문과 중국사회과학원에 있는 심의림 교수 외에는 모두 베이징대학 조선어학과에 남아 교수가 된 이들이다.

이 시기에 여전히 제2언어 중역(重譯)으로 북한의 작품을 번역한 작가 신분의 역자가 있다. 예를 들어, 저명한 여성작가인 빙신(冰心)도 북한 문학작품의 번역에 참여했는데 주로 북한 사람이 쓴 영어 번역본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했다.

IV.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한국문학 전파와 번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여 초보적인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등 ‘개혁개방’의 단계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경제 발전에 따라 상업문화도 눈부시게 성장했다. 이는 문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문학, 여성문학, 개성화 창작 등은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이다.

1. 문학 번역과 출판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장경제의 영향

1992년 중국과 한국은 정식 수교를 체결했다. 중국은 몇십 년간 사용했던 ‘남조선’이란 명칭을 ‘한국’으로 바꾸고 양국 문화교류도 비교적 자유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세계문학』, 『역림(譯林)』, 『외국문예』에서 한국 문학작품의 중국어 번역본을 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상해역문출판사, 학림출판사, 인민문학출판사, 동방출판사, 중국우의출판사 등은 1990년대에 먼저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 사업을 추진했다. 주로 소설이 번역 소개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시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으로, 중국우의출판사에서 출판됨으로써 한국 현대시가 중국에서 번역 소개되기 시작했다.

1994년 『세계문학』 제3기에 ‘한국문학모음’이라는 이름으로 네 편의 한국 단편소설을 번역 게재했는데 “배꽃 질 때(梨花)” (김지연, 崔成德 譯), “소나기(雷雨)” (황순원, 崔成德 譯), “갯마을(浦口漁村)” (오영수, 黎峰 譯), “무녀도(巫女圖)” (김동리, 張璉瑰 譯) 등이 그것이다. 이 소설들은 모두 한국 현대문학의 명작이다. 1995년 학림출판사에서는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扭曲了的英雄)』을, 2년 후 『사람의 아들(人的兒子)』을 번역 출판했다.

학림출판사 외에 인민문학출판사, 동방출판사, 중국문연출판사, 상해역문출판사도 적지 않은 한국의 저명 소설가의 작품들을 출판했다.

1990년대 중국에는 인터넷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외국문학에 대한 독자층의 이해는 주로 인쇄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문화 연관성이 있는 다른 나라의 문학은 적지 않은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중

에는 외국문학선호자들, 중국언어문학학과에 속해 있는 세계문학과 비교문학 전공의 학생과 교수들, 그리고 많은 문학 연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1990년대 중국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중국의 출판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출판사는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시장경제 경영 패턴으로 전환했는데 덕분에 많은 한국 대중문학이 중국으로 번역 소개될 수 있었다.

멍자오이(孟昭毅)는 20세기의 중국문학은 줄곧 대중정치문화의 지배하에 발전해왔다고 한다.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과 전파는 사회정치제도의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중국 수교 이후 한국문학 번역이 금지구역을 벗어나게 되었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 도서시장의 불경기는 한국문학의 번역과 출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02년 중한 정치관계의 호전으로 중국에서 한국 문학작품의 전파와 번역이 다시 추진되었다. 중한 수교 10주년이 됨에 따라 중국에 번역 소개되는 한국 문학작품이 많아지고 우수한 한국 순수문학작품도 많이 번역되었다. 그중 노벨문학상 후보작으로 여러 번 추천받은 김동리의 소설집 『무너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의 역자는 한메이(韩梅)와 최윤경(崔胤京)이고 상해역문출판사에서 출판했다.

21세기 초 인터넷의 보급,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 중국 대륙에서 한국 영상 프로그램의 대량 수입 등의 영향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각 출판사에서는 총서의 형식으로 한국문학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 광저우에 있는 화성(花城)출판사에서 “한국당대문학총서”를 내놓았는데 역자는 쉘저우(薛舟), 쉬리홍(徐丽红) 부부다. 이 총서에는 현대 한국 여성작가 네 명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은희경의 『타인에게 말 걸기』, 신경숙의 『종소리』, 김인숙의 『브란스밴드를 기다리며』, 권지예의 『폭소』가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한국 중단편소설의 최고상인 ‘이상문학상’ 수상자들이다. 중국 화평출판사에서는 시집 『사랑과 자연』을 10권으로 번역 출판하기도 했다.

2005년 후난TV에서 방영한 한국드라마 <대장금>은 전래 없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것은 중국에서 한국문화 전파의 징표가 되었다. 이로써 한류 문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한류는 한국 문학작품의 출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듬

해 각 출판 기업은 대량의 한국의 우수 작품을 중국에 번역 소개했다. 예를 들어 상해역문출판사, 백화문예출판사, 북경조양출판사, 인민문학출판사, 민족출판사, 춘풍문예출판사 등이 한국의 많은 우수 작품을 번역 출판했다. 특히 상해역문출판사와 인민문학출판사와 같은 전문출판사뿐만 아니라 북경조양출판사 같은 상업화된 출판사까지 출판사의 폭이 확대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수교 이래 500여 종의 한국 현대소설이 중국에서 번역 출판되었는데, 대부분이 대중소설이고 순수문학은 100여 종에 불과했다고 한다(왕염려, 2014: 2). 한류의 영향을 받은 한국 대중소설의 대량 도입과 출판은 한국 현대문학의 중국에서의 전파를 촉진했고 그 영향력을 높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았다. 즉 중국 독자들이 한국 현대문학의 주류가 대중문학이고 그것이 진수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수교 이후 한국 현대소설의 대규모 번역과 출판은 전래 없는 일이었고, 이는 중국 독자들이 한국 현대문학을 이해하고 양국의 문학 교류를 깊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프리랜서 역자의 출현

이 시기에는 역자층도 더 다양해졌는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프리랜서 역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중 쉘저우(薛舟, 원래 이름 宋时珍)와 쉬리홍 부부가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모두 한족이고 한국어학과 출신이다.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한국작가 10여 명의 60여 작품을 번역했는데 그중 『외판방』은 제8회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했다(孟昭毅 等, 2014: 901-902). 두 사람은 한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실력도 만만치 않다. 쉘저우는 번역가이자 시인으로 중국어로 시도 많이 창작했다.

이 시기에 한국 현대소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중국 도서시장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문학번역가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출판사에서는 한국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심지어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 애호가에게까지 번역을 맡겼다. 언어 수준이나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번역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시점에 수준 높은 프리랜서 번역가의 출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출판사는 번역작품을 선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주로 시장수요와 상업적 이익에 따라 작품을 선택했다. 동시에 역자의 제안에도 귀를 기울여 역자들도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한국당대문학총서”는 바로 역자와 화성출판사의 두 명의 편집자가 같이 기획한 것이었다.

3. 한국 후원의 등장

번역협찬자란 개념은 미국 학자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re)가 1992년에 처음 제기한 것이다. 르페브르는 문학시스템에는 시스템 내부의 전문가들과 시스템 외부의 협찬자라는 두 가지 조종 요소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시기 한국 현대문학작품의 중국에서의 전파와 번역 특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한국 내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이었다. 2001년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배경하에서 번역원이 설립되었는데 2001년에서 2016년 4월까지 215종의 작품의 중역을 지원했다. 그중 소설 138종, 시 13종, 인문사회(고전작품 포함)류 49종, 아동문학 15종이 있다.³ 장르별로 보면 역시 소설을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대부분 순문학작품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작품의 양을 보면 중국어에 대한 번역 지원은 영어에 이어 35개 언어 중 두 번째로 많다.⁴ 이는 중국어권에 대한 중시 정도를 보여준다.

그 외에 한국대산문화재단도 1995년부터 한국문학의 중역을 지원했다.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발행하고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출판하는 『코리아나』 중국어 판도 매 회마다 한국 중단편소설 한 편을 실어왔다.

한국문학의 중역을 지원하는 한국의 협찬은 한국 내 한국문학세계화정책과 중한 교류의 영향이었는데, 이것은 질과 양 두 측면에서 문학작품의 전파와 번역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

³ 한국문학번역원 사이트 참조, <https://www.ltikorea.or.kr>

⁴ 한국문학번역원 사이트 참조, <https://www.lti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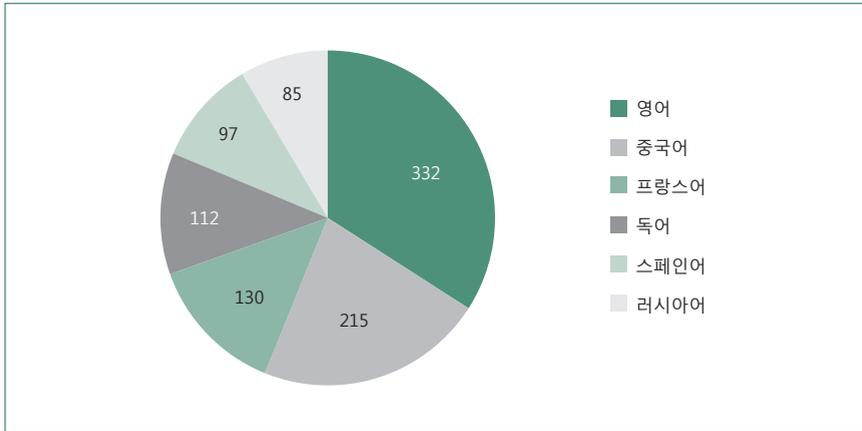


그림 1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작품 수(2001~2016)

V. 직면한 문제, 도전, 그리고 나아갈 길

중국에서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의 흐름을 보면 정치와 이데올로기에서는 “큰 영향—심각한 영향—부분 영향”, 번역 목적 면에서는 “거울로 삼는 약소나라—백화제방(百花齊放)의 이웃나라—시장수요의 한류나라”라는 과정을 거쳤다. 수교 후의 번역 상황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눈부신 성과를 거둔 동시에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주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작품의 전파와 번역의 양에 비해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인지도가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중국 학자 왕옌리(王艷麗)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독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문학작품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자는 33명이고,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자는 단 3명뿐이다(왕옌리, 2014: 3).

이런 상황은 다양한 원인에서 초래된 결과다. 그중 매우 중요한 요소는 중국에서의 한국문학의 시장마케팅 홍보 부족이다. 중국의 각 매체와 서점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홍보를 보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단상제(單向街)’는 중국의 유명 지식인이자 언론인 쉬즈위엔이 창립한 민영서점인데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그곳의 외국문학 서가에는 영미,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문학이 따로 진열되어 있는 반면, 한국 문학작품은 ‘기타’ 코너로 분리되어 겨우 한두 권밖에 없다. 독자들이 많이 모이는 ‘추천도서’ 코너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장마케팅 홍보는 현재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전파를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독자의 심미적 성향에 맞는 우수한 작품을 중심으로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번역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출판사는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아 역자 선택에 신중하지 않았다. 그 외에 일부 출판사의 ‘저렴한 번역료와 촉박한 기한’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셋째, 타깃언어 나라의 독서습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보급에 따라 많은 독자는 앱에서 전자책을 읽는 방식을 주로 택한다. 예를 들어, 지금 ‘위챗 독서’는 많은 젊은이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필자는 거기서 한국 현대소설을 찾지 못했다.

이 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현대문학의 중국에서의 전파와 번역은 아직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각 나라의 민족주의 정서라는 울타리다. 한국 목포대학의 임춘성 교수가 지적했듯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즈음 중국에서 ‘혐한’ 혹은 ‘반한’의 기류가 나타났고, 반면 한국 젊은 네티즌의 ‘혐중’ 정서는 중국 젊은 네티즌의 반한 정서가 생기기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한국의 ‘혐중’ 정서는 서양의 황화론(黃禍論, Yellow Terror)⁵으로 무장된 미국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林春城, 2016). ‘사드’ 문제는 이런 민족주의 정서를 더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축의 추진에 따라 중국은 ‘문화 해외 진출(走出去)’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중국 문화의 전파와 더불어 한국 문화의 대외 전파와 서로 경쟁관계를 이루었다. 중국 내에서는 ‘국학열’이 형성되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전통문화가 전래 없는 중시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선전부 산하에 있는 국가사회과학기회처에서는 근래에 국가사회과학기금 중국학술

⁵ 청일전쟁 말기인 1895년경,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황색 인종을 억압하기 위해서 내세운 모략으로, 앞으로 황색 인종이 서구의 백인 사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 그 내용이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편집자 주)

외국어번역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 현대문학의 중국에서의 전파와 번역에 하나의 도전이다.

셋째, 역자들 중 중국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국 체제 내 직함 진급의 심사 표준에서 번역문을 중요시 하지 않아서 양질의 번역을 담보하는 교수 역자진들의 번역에 대한 흥미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도 중국에서 한국문학의 번역과 전파를 가로막는 하나의 난제다.

넷째,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와 커리큘럼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학교만 문학 소양 양성에 중시할 뿐 대부분 학교는 여전히 언어 훈련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잠재적인 역자가 있는 기구다. 중국에서의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사를 살펴보면 번역자는 작가로부터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로 확대되어왔지만, 중국에서 환영을 받았던 작품은 타깃언어(중국어) 독자의 독서습관에 잘 맞는 번역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역자 양성 과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한국어와 중국어 문학 소양 양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이런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첫째, 중한 정치관계는 한국 현대문학의 중국에서의 전파와 번역의 결정적인 요소다. 중국에서 한국 현대문학의 더 많은 전파를 위해 한중정치관계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한중 번역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가 매우 드물다. 이는 역자단체 사회가치의 실현과 한중현대문학 교류의 촉진에 이롭지 않다. 셋째, 정치관계가 완화되기 전이라도 한국 측에서 더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특히, 한중협력을 계속 강화해서 중국에서의 한국문학시장 개척을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곤. 2006. 『글로벌 시대의 문학』. 민음사.
- 김주현. 2017.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 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제16회 국어국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 5.
- 김학철. 2009. “20세기 한국문학 중역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시라카와 유타카. 2010. 『장혁주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 왕염려. 2014. “중국의 한국 현대문학 번역 및 수용 양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길 외. 2005. “한국문학 세계화 방안 연구: 한류현상을 계기로 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국문학번역원.
- 林春城. 2011. “關於韓中文化溝通與跨越的考察: 以韓國文學作品在中國翻譯出版現狀為重心.” 『學術界』, 2011年第 6期.
- 韓昌熙. 1963. “美帝控制下的南朝鮮文學.” 『世界文學』, 1963年 第7號.
- 金鶴哲. 2009. “1949年以前韓國文學漢譯和意識形態因素.” 『中國比較文學』, 2009年 第4期.
- 金長善. 2006. “20世紀後半期韓國文學譯介在中國.” 『世界文學評論』, 2006年 第2期.
- 金哲. 2013. 『20世紀上半期中朝現代文學關係研究』. 山東大學出版社.
- 李元棍. 1963. “南朝鮮文學의 現況.” 『勞動者』, 1963年 第4號.
- 孟昭毅 等. 2014. 『中國東方文學翻譯史』(下卷). 昆侖出版社.
- 朴虎範. 1963. “宣揚死亡和絕望的文學: 去年南朝鮮文學現況.” 『文學新聞』, 1963年 第4號.
- 沈儀琳. 1978. “南朝鮮的小說創作和文學評論傾向.” 『國外社會科學』, 1978年 第4期.
- 王向遠. 2001. 『東方各國文學在中國: 譯介與研究史述論』. 江西教育出版社.
- 謝天振. 2009. “非常時期的非常翻譯.” 『中國比較文學』, 2009年 第2期.
- 楊義. 2009. 『二十世紀中國翻譯文學史』(十七年及“文革”卷). 百花文藝出版社.
- 楊昭全. 2004. 『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史』(IV). 昆侖出版社.
- 張赫宙 等著, 胡風 譯. 1936. 『山靈』. 生活文化出版社.
- 周作人. 1932. 『看雲集』. 上海開明書店.

Abstract

The Communication and Translation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n China: Evolution and Reflection

Heyun Sun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Zhiqiang Liu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n modern literature began to spread to China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lthough there were developments and plateaus during the different periods, the history of translation and dissemination have lasted for a long time. In the perspective of the aims of translation, the image of South Korea has gone through many changes. At first, it was “a small country whose experience can be used for reference,” then it was “a neighboring country that allowed all flowers to bloom together in modern literature,” and at last it came to be “a country whose pop culture-Korean Wave-meets market demands.”

On the basis of existing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translation and spread of South Korean modern literature in china from 1910 to the present. As a result, this paper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periods in modern history. Moreover,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in the translations of South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suggests solutions at a macro and comprehensive historical perspective.

Keywords | China, South Korean modern literature, social dissemination, translation